

차별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안주엽*

I. 문제제기

우리 헌법은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연합헌법에서는 차별의 이유로 국적, 성, 인종, 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유전적 형태,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다른 의지, 소수민족국가 소속여부,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경향을 들고 있다.¹⁾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유형은 채용, 승진, 근로조건, 교육훈련기회, 해고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처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법체계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이 다양한 법령 속에 산재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하지 못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성차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 외의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성차별 금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성차별에 대한 포괄적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동법은 동조 동항(차별간주조항)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²⁾ 이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를 채용과 근로조건을 적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불이익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email: jyahn@kli.re.kr)

1) 유럽연합헌법은 제III-80조에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이후 제III-81조 제1항에서 차별금지를 명시하면서 열거된 차별의 이유이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III-118조와 제III-124조에서는 성,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의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2) 동법 동조항에서는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소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차별대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의 유형을 근로조건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인사관리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연령자고용촉진법은 제4조의2(고연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연령자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연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³⁾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제22조(차별금지)에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 또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과 다양한 노동법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 차별적 처우, 또는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뿐 아니라 교육과정(진학 중심)에서,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겪은(또는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차별유형으로는 성(남성/여성), 학력, 연령, 장애인, 출신지역, 그리고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차별인식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변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차별논의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한다(추후 완료). 그러나 여전히 차별인식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제7차년도 조사에 포함된 차별인식에 관한 설문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차별인식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한다. 제4절에서는 차별상황 중에서는 취업차별(채용차별)과 임금차별 및 사회차별, 차별유형 중에서는 학력차별과 연령차별을 중심으로 차별인식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유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3) 고연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정의) 제1항은 '“고연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고연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연령자 및 준고연령자의 정의)에서는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연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연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II. 차별에 대한 논의 (추후 완료)

III. 차별인식에 대한 기초분석

1.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제7차년도 조사에서는 차별인식에 대한 설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응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차별상황’으로는

- ①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때
- ② 임금(월급, 보수)
- ③ 일자리에서 교육 훈련 기회
- ④ 승진이나 승급
- ⑤ 일자리를 그만 둘 때
- ⑥ 학교에 진학할 때
- ⑦ 가정의 생활에서
- ⑧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를 상정하고 있다. 첫 다섯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상황인 반면 나머지는 기타 주요한 상황에서 차별을 겪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귀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차별을 겪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 ① 차별을 겪고(겪은 적이) 있다
- ② 없다
- ③ 해당사항 없음

으로 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다음 중 어느 부분에서 차별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추가하여 차별경험이

- ① 여성/남성
- ② 학력(학벌)
- ③ 연령
- ④ 장애(인)
- ⑤ 출신지역
- ⑥ 기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복수응답토록 하고 있다.

2. 전반적인 차별 인식

다음 두 표는 차별상황별 그리고 차별유형별 차별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 표본 11,661명 중 21%에 해당하는 2,450명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상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취업차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차별이나 진학차별, 해고차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정에서 발생가능한 차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별유형별 경험비중을 보면, 학력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차별경험 표본 중 52%), 그 뒤를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따르고 있다. 여타 차별유형은 비중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차별은 표본 자체에서 장애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표 1> 차별상황별 차별인식

(단위: 명, %)

	차별인식률			차별인식여부			
	전체표본 대비	유효표본 대비	유경험표본 대비	차별경험	차별부정	무관	무응답
취업차별	13.2	18.1	62.9	1,541	6,964	3,106	50
임금차별	9.6	13.2	45.9	1,124	7,387	3,099	51
교육훈련차별	1.3	1.9	6.0	148	7,582	3,879	52
승진(급)차별	3.6	5.6	17.2	422	7,090	4,098	51
해고차별	1.5	2.2	7.1	175	7,704	3,731	51
진학차별	1.7	1.9	8.1	198	10,039	1,372	52
가정에서	3.2	3.4	15.2	373	10,531	705	52
일반사회	7.2	7.7	34.2	839	10,031	740	51

<표 2> 차별유형별 차별 인식

(단위: 명, %)

	유형별 차별경험 표본	전체 표본대비 비중	차별경험 표본 대비
차별경험	2,450	21.0	
성차별	969	8.3	39.6
학력차별	1,269	10.9	51.8
연령차별	877	7.5	35.8
장애차별	88	0.8	3.6
지역차별	95	0.8	3.9
기타차별	188	1.6	7.7

4) 전체 표본 중 장애인 표본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은 차업상황별로 차별을 경험한 표본이 어떤 차별유형을 경험하였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복합차별(둘 이상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취업차별을 보면, 이를 경험한 표본 중 약 27%는 둘 이상의 차별유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상황에서도 유사한 복합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차별상황별 차별인식 차별유형별 차별인식(?)

(단위: 명, %)

	경험표본	성	학력	연령	장애	지역	기타
취업차별	1,541	293	813	670	56	41	88
임금차별	1,124	332	630	307	27	14	67
교육훈련차별	148	31	74	29	17	4	13
승진(급)차별	422	128	244	43	11	36	43
해고차별	175	30	44	82	14	7	20
진학차별	198	166	9	4	16	3	3
가정에서	373	339	12	10	11	0	6
일반사회	839	286	485	224	64	34	27
차별상황별 차별유형분포							
	복합차별	성	학력	연령	장애	지역	기타
취업차별	1.27	19.0	52.8	43.5	3.6	2.7	5.7
임금차별	1.23	29.5	56.0	27.3	2.4	1.2	6.0
교육훈련차별	1.14	20.9	50.0	19.6	11.5	2.7	8.8
승진(급)차별	1.20	30.3	57.8	10.2	2.6	8.5	10.2
해고차별	1.13	17.1	25.1	46.9	8.0	4.0	11.4
진학차별	1.02	83.8	4.5	2.0	8.1	1.5	1.5
가정에서	1.01	90.9	3.2	2.7	2.9	0.0	1.6
일반사회	1.33	34.1	57.8	26.7	7.6	4.1	3.2
차별경험표본대비 비중							
	차별경험	성	학력	연령	장애	지역	기타
취업차별	62.9	12.0	33.2	27.3	2.3	1.7	3.6
임금차별	45.9	13.6	25.7	12.5	1.1	0.6	2.7
교육훈련차별	6.0	1.3	3.0	1.2	0.7	0.2	0.5
승진(급)차별	17.2	5.2	10.0	1.8	0.4	1.5	1.8
해고차별	7.1	1.2	1.8	3.3	0.6	0.3	0.8
진학차별	8.1	6.8	0.4	0.2	0.7	0.1	0.1
가정에서	15.2	13.8	0.5	0.4	0.4	0.0	0.2
일반사회	34.2	11.7	19.8	9.1	2.6	1.4	1.1

3. 인적 속성과 차별 인식

다음 표들은 인적속성별로 차별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예상과 일치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을 경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차별유형별로 보면남성은 상대적으로 학력 차별 경험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성차별 경험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차별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5~64세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중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15~24세에서는 11%, 65세 이상에서는 22%로 연령대에 따라 2차식의 모습을 보임) 이는 연령차별 경험 비중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성차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차별은 25~34세와 45~54세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미만에서는 차별경험 비중이 23%에 이르는 반면 대학원졸에서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별을 경험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력차별을 경험하는 비중이 교육수준과 역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졸미만에서는 성차별, 학력차별, 연령차별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표 4> 인적 속성별 차별인식 - 차별유형

(단위: 명, %)

	표본	차별경험		차별유형별 차별경험 비중					
		표본	비중	여성	학력	연령	장애	지역	기타
전체	11,661	2,450	21.0	8.3	10.9	7.5	0.8	0.8	1.6
성별									
남성	5,634	1,120	19.9	1.5	13.6	7.8	1.1	1.2	1.8
여성	6,027	1,330	22.1	14.7	8.3	7.2	0.4	0.5	1.4
연령대									
15~24	1,851	203	11.0	4.3	7.1	1.6	0.4	0.1	1.4
25~34	2,547	567	22.3	8.1	13.8	4.7	0.6	1.1	2.4
35~44	2,394	549	22.9	8.2	12.6	8.1	1.0	1.2	2.3
45~54	2,006	470	23.4	8.6	13.1	10.5	0.9	0.6	1.3
55~64	1,382	340	24.6	9.6	10.2	13.4	1.0	0.9	0.8
65+	1,481	321	21.7	12.3	5.3	9.4	0.6	0.9	0.4
교육									
고졸미만	4,235	969	22.9	10.2	10.8	9.9	1.2	0.5	1.0
고졸	4,037	920	22.8	7.3	13.7	7.4	0.7	0.7	1.9
전문대졸	1,491	281	18.8	7.7	10.9	4.4	0.4	0.7	2.0
대졸	1,684	256	15.2	6.8	5.4	5.0	0.1	1.8	2.1
대학원졸	214	24	11.2	6.1	2.8	3.3	0.0	0.9	1.4

차별상황별 인적속성별 차별경험 비중을 보면, 예상과는 달리, 여성이 취업차별이나 임금차별을 경험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지는 않다는 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취업차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여 55~64세 연령층에서는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임금차별은 25~34세 연령층에서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낮아진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차별과 임금차별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노동시장 상황 중 사회차별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5~54세 연령층에서 사회차별 경험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차별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인적속성별 차별 인식 - 차별상황별(노동시장 차별)

(단위: %)

	취업		임금		훈련		승진		해고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전체	13.2	18.1	9.6	13.2	1.3	1.9	3.6	5.6	1.5	2.2
성별										
남성	14.5	18.5	10.1	12.7	1.5	2.0	4.5	6.3	1.8	2.5
여성	12.0	17.7	9.2	13.7	1.1	1.8	2.8	4.8	1.2	1.9
연령대										
15~24	7.3	17.8	5.8	14.3	1.0	2.8	1.2	3.8	0.4	1.1
25~34	15.9	18.2	11.4	13.1	1.3	1.5	5.1	6.4	1.5	1.8
35~44	15.5	18.3	11.2	13.1	1.5	1.9	5.1	6.7	1.5	1.9
45~54	14.7	17.9	11.0	13.4	1.6	2.1	3.8	5.2	1.5	2.0
55~64	15.1	20.3	10.6	14.2	1.9	2.9	2.6	4.2	2.0	3.0
65+	8.6	15.5	6.1	11.2	0.3	0.7	2.2	4.8	2.3	4.4
교육										
고졸미만	13.1	22.4	9.3	16.0	1.0	2.1	1.8	3.8	1.6	2.9
고졸	15.1	18.9	12.1	15.1	1.7	2.3	4.9	6.8	1.7	2.2
전문대졸	12.9	16.7	9.2	11.9	1.1	1.6	4.1	5.9	1.2	1.7
대졸	10.2	11.6	5.8	6.6	1.1	1.3	4.9	5.9	1.3	1.6
대학원졸	6.5	7.5	2.8	3.2	0.5	0.5	2.3	2.7	0.9	1.1

주: 비중 1은 전체 표본 중 차별을 경험한 비중, 비중 2는 유효표본(무응답과 해당없음을 제외) 중 차별을 경험한 비중을 의미함.

<표 6> 인적속성별 차별 인식 - 차별상황별(비노동시장 차별)

(단위: %)

	진학		가정		사회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전체	1.5	2.2	3.2	3.4	7.2	7.7
성별						
남성	1.8	2.5	0.5	0.5	7.1	7.5
여성	1.2	1.9	5.7	6.2	7.3	8.0
연령대						
15~24	0.4	1.1	0.6	0.7	3.8	4.3
25~34	1.5	1.8	2.2	2.3	6.7	7.0
35~44	1.5	1.9	3.0	3.2	7.9	8.3
45~54	1.5	2.0	2.9	3.1	9.1	9.5
55~64	2.0	3.0	3.9	4.2	8.2	8.8
65+	2.3	4.4	8.2	9.2	7.5	8.5
교육						
고졸미만	1.6	2.9	5.3	5.9	9.2	10.2
고졸	1.7	2.2	2.3	2.5	6.9	7.3
전문대졸	1.2	1.7	1.6	1.7	5.8	6.1
대졸	1.3	1.6	1.5	1.6	4.5	4.6
대학원졸	0.9	1.1	1.4	1.5	3.7	3.9

4. 거주지역별 차별 인식

다음 표들은 거주지역별 차별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을 경험한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 대전, 울산, 충북에서 30%를 전후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인천은 11%에 불과하며 서울과 강원 및 전남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차별을 경험한 비중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부산, 대전, 울산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서울 인천 충남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남과 전북에서는 여타 유형의 차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차별은 부산, 대전, 울산, 충북 뿐 아니라 광주, 강원, 경북, 경남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며, 임금차별은 부산과 대전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지역별 차별 인식 - 차별상황별(비노동시장 차별)

(단위: %)

	진학		가정		사회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전체	1.5	2.2	3.2	3.4	7.2	7.7
지역						
서울	1.1	1.4	2.2	2.4	4.1	4.7
부산	3.0	4.9	4.0	4.1	16.4	17.0
대전	2.7	4.2	8.9	9.5	14.6	15.3
대구	0.8	1.0	0.5	0.5	2.0	2.1
인천	0.7	0.9	1.8	1.9	3.1	3.3
광주	1.8	2.9	1.8	1.9	7.2	7.5
울산	1.9	2.3	1.9	1.9	18.1	18.3
경기	1.1	1.5	2.7	2.9	6.2	6.6
강원	0.5	1.2	3.2	5.6	3.2	5.6
충북	0.8	1.4	2.4	2.8	7.3	8.4
충남	1.7	3.1	10.8	10.8	4.3	4.3
전북	2.5	4.0	8.7	9.0	14.4	14.8
전남	1.9	3.8	3.2	3.2	5.4	5.5
경북	1.1	2.0	1.3	1.3	3.0	3.2
경남	2.0	3.1	0.9	0.9	5.6	5.7
제주	0.0	0.0	0.0	0.0	0.0	0.0

5. 경제활동상태와 차별 인식

다음 표들은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별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 실업자 중 차별을 경험한 비중이 4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그리고 취업차별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에 임금차별을 겪은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차별 유형별로 보면,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학력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임시직은 성차별, 연령차별, 학력차별을 모두 심하게 겪고 있으며, 일용직은 학력차별과 연령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수비경활인구도 차별을 경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성차별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학비경활인구는 아직은 차별을 경험할 상황에 접할 기회가 적어 차별인식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경제활동상태별 차별인식 - 차별 유형별

(단위: 명, %)

	표본	차별경험		차별유형별 차별경험 비중					
		표본	비중	여성	학력	연령	장애	지역	기타
전체	11,661	2,450	21.0	8.3	10.9	7.5	0.8	0.8	1.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309	781	23.6	7.0	15.1	7.8	0.3	1.1	2.1
임시직	449	166	37.0	14.3	18.7	16.3	0.7	1.6	5.6
일용직	499	199	39.9	6.6	24.8	20.0	0.6	0.8	4.4
고용주	508	61	12.0	4.3	6.5	4.1	0.4	1.4	1.0
자영자	1,051	170	16.2	4.5	9.5	6.2	0.7	0.7	0.9
무급종사자	468	98	20.9	16.9	6.8	4.3	0.4	0.2	0.9
실업자	323	156	48.3	9.9	27.6	25.1	1.2	2.5	5.3
재학비경황	1,423	63	4.4	2.1	2.2	0.5	0.2	0.1	0.4
순수비경황	3,631	756	20.8	11.8	7.6	6.9	1.5	0.6	0.9

<표 11> 경제활동상태별 차별인식 - 노동시장 차별

(단위: %)

	취업		임금		훈련		승진		해고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전체	13.2	18.1	9.6	13.2	1.3	1.9	3.6	5.6	1.5	2.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6.0	16.7	13.5	13.9	1.7	1.8	6.1	6.8	1.2	1.4
임시직	29.0	30.5	21.4	22.5	3.1	3.9	5.6	7.4	3.3	4.0
일용직	31.3	32.4	20.6	21.4	2.0	2.5	3.2	4.3	2.8	3.3
고용주	6.5	8.0	5.5	6.8	0.4	0.5	3.7	5.0	0.2	0.3
자영자	9.1	12.3	5.1	7.0	0.9	1.2	2.3	3.5	0.9	1.2
무급종사자	7.3	11.9	5.1	8.4	0.9	1.6	1.5	2.9	0.4	0.8
실업자	42.7	47.6	22.6	25.7	3.4	4.7	8.0	11.1	8.4	10.2
재학비경황	2.1	8.5	1.7	6.8	0.2	0.9	0.4	2.0	0.3	1.2
순수비경황	10.9	17.0	7.6	12.0	1.1	1.9	2.7	4.9	1.7	2.8

취업자 중 취업차별을 겪은 비중은 상용직은 16%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30%를 넘고 있다. 임금차별을 경험한 비중 역시 상용직은 14%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20%를 넘고 있다.

<표 12> 경제활동상태별 차별 인식 - 차별상황별(비노동시장 차별)

(단위: %)

	진학		가정		사회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비중1	비중2
전체	1.5	2.2	3.2	3.4	7.2	7.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2	1.4	1.5	1.6	7.0	7.1
임시직	3.3	4.0	2.9	3.0	10.0	10.3
일용직	2.8	3.3	4.0	4.1	14.0	14.3
고용주	0.2	0.3	2.2	2.3	5.5	5.7
자영자	0.9	1.2	2.2	2.3	8.3	8.8
무급종사자	0.4	0.8	7.5	8.0	8.8	9.4
실업자	8.4	10.2	1.9	2.0	13.6	14.3
재학비경활	0.3	1.2	0.6	0.7	1.4	1.6
순수비경활	1.7	2.8	5.6	6.2	7.5	8.4

IV. 차별인식 결정요인

1. 모형 탐색

차별인식에 대한 실증분석모형은

$$\text{(기본모형)} \quad y_i^* = X_{1i}\beta_1 + \epsilon_i$$

로 X_1 는 설명변수군, β_k 는 이에 상응하는 추정되어질 계수의 벡터이다. 그러나 y_i^* 가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므로 관찰가능한 변수

$$y_i = 0 \text{ (차별 경험 없음)}$$

$$1 \text{ (차별 경험 있음)}$$

로 표현되며(실제분석에서 무응답표본과 ‘해당없음’이라 응답한 표본은 해당 분석에서 제외), 종속변수가 이진변수(binary)이고 오차항(ϵ_i)이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이 된다.

가장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한 모형탐색과정은 기본모형과 대안모형

$$\text{(대안모형)} \quad y_i^* = X_{1i}\beta_1 + X_{2i}\beta_2 + \epsilon_i$$

을 비교하는 것으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각각

$$H_0: \beta_2 = 0 \quad \text{vs.} \quad H_A: \beta_2 \neq 0$$

이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하에 얻어진 최우도(maximum log-likelihood)를 각각 L_r 과 L_u 라 하면, 우도비 가설검정 통계량은

$$LR = (L_u - L_r) * 2 \sim \chi^2(r)$$

이며, 이는 자유도 r 을 가진 카이제곱분포를 한다. 여기서 자유도는 귀무가설에서 주어진 제약식의 갯수이다.

다음 표는 전반적 차별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⁵⁾ 모형 1에는 인적속성으로 성(남성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연령(/10)과 이의 제곱, 교육수준(고졸미만, 고졸(기준),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건강상태(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기준), 나쁜 편, 매우 나쁨)을 포함하고 있다. 모형 2는 거주지역이 광역시인 지역가변수(서울 기준), 모형 2'은 거주지역이 도지역인 지역가변수(서울 기준), 모형 2''은 거주지역이 광역시도인 지역가변수(서울 기준)를 포함하고 있다. 모형 3은 이에 더하여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상용직근로(기준), 임시직근로, 일용직근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재학비경활, 그리고 순수비경활이 포함된다. 모형 4는 이에 더하여 가구특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입주형태(자가(기준), 전세, 월세, 기타 입주형태), 주거종류(단독주택(기준),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

5) ‘전반적 차별’이라 함은 본조사에서 조사된 8가지 차별을 경험한 상황 중 한 가지 상황 이상에서 차별을 경험한 표본을 차별경험표본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택, 기타 주거종류), 가구경제상황(매우 여유, 여유있는 편, 보통(기준),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다. 모형 5와 5'은 이에 더하여 가구의 자산이나 가구소득을 고려하는 모형이다. 부동산 자산 보유여부, 금융자산 보유여부, 부채 보유여부는 공통으로 포함되며, 전자는 가구총소득수준(로그)를 후자는 소득원별 소득수준(로그)이 포함된다. 소득원으로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부조, 이진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모형탐색과정은 모형 5나 5'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에는 모형 5'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표 13> 모형탐색

	모형 1			모형 2			모형 2'			모형 2''		
상수	-2.3694	(.1413)	***	-2.3771	(.1433)	***	-2.3484	(.1434)	***	-2.6210	(.1481)	***
여성	0.1636	(.0370)	***	0.1641	(.0375)	***	0.1640	(.0370)	***	0.1694	(.0377)	***
배우자	-0.1716	(.0435)	***	-0.1729	(.0440)	***	-0.1729	(.0436)	***	-0.1768	(.0443)	***
기타가구원	0.1172	(.0460)	**	0.0999	(.0467)	**	0.1148	(.0462)	**	0.1153	(.0470)	**
연령/10	0.7082	(.0563)	***	0.6898	(.0571)	***	0.7103	(.0566)	***	0.7131	(.0576)	***
(연령/10)제곱	-0.0712	(.0057)	***	-0.0695	(.0058)	***	-0.0715	(.0057)	***	-0.0719	(.0058)	***
고졸미만	0.0002	(.0350)		-0.0224	(.0355)		-0.0043	(.0351)		-0.0363	(.0357)	
전문대졸	-0.0604	(.0446)		-0.0871	(.0452)	*	-0.0623	(.0447)		-0.0880	(.0453)	*
대졸	-0.2754	(.0434)	***	-0.2858	(.0440)	***	-0.2755	(.0434)	***	-0.2661	(.0442)	***
대학원졸	-0.5056	(.1163)	***	-0.4853	(.1167)	***	-0.5060	(.1165)	***	-0.4573	(.1172)	***
건강매우 좋음	-0.0474	(.0723)		-0.0425	(.0732)		-0.0452	(.0725)		-0.0570	(.0735)	
좋은 편	-0.0165	(.0315)		-0.0691	(.0322)	**	-0.0341	(.0324)		-0.0812	(.0330)	**
나쁜 편	0.1099	(.0436)	**	0.0937	(.0441)	**	0.0996	(.0440)	**	0.0913	(.0446)	**
매우 나쁨	0.3309	(.0854)	***	0.2739	(.0863)	***	0.3255	(.0861)	***	0.2536	(.0873)	***
부산				0.5455	(.0432)	***				0.7443	(.0505)	***
대전				0.5114	(.0523)	***				0.7089	(.0585)	***
대구				0.0425	(.0763)					0.2387	(.0806)	***
인천				-0.3332	(.0639)	***				-0.1358	(.0691)	**
광주				0.2638	(.0770)	***				0.4617	(.0814)	***
울산				0.3745	(.0775)	***				0.5733	(.0819)	***
경기							-0.0766	(.0355)	**	0.2193	(.0432)	***
강원							-0.2089	(.1045)	**	0.1001	(.1074)	
충북							0.2679	(.0877)	***	0.5798	(.0913)	***
충남							-0.0324	(.0793)		0.2693	(.0830)	***
전북							0.1783	(.0660)	***	0.4874	(.0707)	***
전남							-0.1346	(.0861)		0.1757	(.0898)	*
경북							-0.0426	(.0603)		0.2705	(.0655)	***
경남							0.0206	(.0543)		0.3351	(.0601)	***
제주							-5.1224			-4.7882		
LogL	-5843.4			-5695.0			-5827.4			-5648.5		
검정통계량				296.8	***		32.0	***		389.8	***	
자유도				6			9			15		

주: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그리고 *는 각각 유의수준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는 본문을 참조.

<표 13> 모형탐색(계속)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5'		
건강매우 좋음	-0.0345	(.0760)		-0.0173	(.0762)		-0.0153	(.0762)		-0.0152	(.0763)	
좋은 편	-0.0794	(.0339)	**	-0.0719	(.0340)	**	-0.0682	(.0341)	**	-0.0704	(.0341)	**
나쁜 편	0.1037	(.0458)	**	0.0728	(.0462)		0.0704	(.0463)		0.0609	(.0464)	
매우 나쁨	0.2643	(.0890)	***	0.2030	(.0902)	**	0.2008	(.0904)	**	0.1852	(.0907)	**
부산	0.7607	(.0520)	***	0.7675	(.0526)	***	0.7562	(.0529)	***	0.7708	(.0534)	***
대전	0.7256	(.0597)	***	0.7434	(.0608)	***	0.7341	(.0611)	***	0.7347	(.0612)	***
대구	0.2538	(.0836)	***	0.2870	(.0843)	***	0.2743	(.0846)	***	0.2768	(.0844)	***
인천	-0.1402	(.0708)	**	-0.1100	(.0714)		-0.1194	(.0718)	*	-0.1129	(.0719)	
광주	0.4700	(.0834)	***	0.5061	(.0842)	***	0.4996	(.0844)	***	0.4933	(.0845)	***
울산	0.6114	(.0838)	***	0.6426	(.0848)	***	0.6450	(.0850)	***	0.6746	(.0856)	***
경기	0.2288	(.0442)	***	0.2645	(.0451)	***	0.2573	(.0453)	***	0.2592	(.0454)	***
강원	0.1090	(.1097)		0.1416	(.1108)		0.1311	(.1113)		0.1497	(.1115)	
충북	0.5885	(.0937)	***	0.6567	(.0950)	***	0.6515	(.0951)	***	0.6378	(.0953)	***
충남	0.2473	(.0846)	***	0.3036	(.0861)	***	0.3158	(.0866)	***	0.3135	(.0868)	***
전북	0.4962	(.0722)	***	0.5416	(.0733)	***	0.5437	(.0736)	***	0.5264	(.0741)	***
전남	0.2214	(.0918)	**	0.2669	(.0929)	***	0.2704	(.0931)	***	0.2615	(.0935)	***
경북	0.2882	(.0674)	***	0.3108	(.0687)	***	0.3201	(.0693)	***	0.3238	(.0696)	***
경남	0.3478	(.0617)	***	0.3889	(.0632)	***	0.3783	(.0633)	***	0.3904	(.0636)	***
제주	-4.9017			-5.2574			-5.2616			-5.2365		
입시직	0.3363	(.0673)	***	0.3006	(.0678)	***	0.2998	(.0679)	***	0.2986	(.0679)	***
일용직	0.3228	(.0648)	***	0.2840	(.0653)	***	0.2799	(.0654)	***	0.2871	(.0655)	***
고용주	-0.4934	(.0791)	***	-0.4892	(.0794)	***	-0.4875	(.0798)	***	-0.4845	(.0798)	***
자영자	-0.3881	(.0558)	***	-0.4076	(.0562)	***	-0.4023	(.0564)	***	-0.3966	(.0564)	***
무급종사자	-0.2208	(.0760)	***	-0.2328	(.0766)	***	-0.2227	(.0769)	***	-0.2201	(.0770)	***
실업자	0.6111	(.0761)	***	0.5535	(.0770)	***	0.5458	(.0772)	***	0.5390	(.0774)	***
재학비경황	-1.0143	(.0772)	***	-1.0004	(.0778)	***	-0.9802	(.0780)	***	-0.9901	(.0783)	***
순수비경황	-0.2003	(.0417)	***	-0.2074	(.0418)	***	-0.2099	(.0421)	***	-0.2247	(.0430)	***
전세				0.0406	(.0370)		0.0410	(.0372)		0.0470	(.0375)	
월세				0.2365	(.0496)	***	0.2232	(.0498)	***	0.2312	(.0499)	***
기타입주형태				0.0792	(.0692)		0.0606	(.0696)		0.0590	(.0699)	
아파트				-0.0249	(.0340)		-0.0336	(.0343)		-0.0268	(.0347)	
연립다세대				0.0471	(.0422)		0.0324	(.0425)		0.0385	(.0427)	
기타주택종류				-0.0529	(.0648)		-0.0534	(.0648)		-0.0536	(.0651)	
가구경제 매우 여유				-0.1144	(.2770)		-0.0999	(.2763)		-0.0569	(.2776)	
여유있는편				-0.1126	(.0723)		-0.0799	(.0731)		-0.0602	(.0746)	
어려운편				0.0971	(.0329)	***	0.0682	(.0348)	*	0.0622	(.0350)	*
매우어려움				0.1142	(.0409)	***	0.0654	(.0459)		0.0547	(.0463)	
부동산자산보유							-0.1041	(.0369)	***	-0.1104	(.0379)	***
금융자산보유							0.0070	(.0330)		0.0116	(.0333)	
부채보유							0.0532	(.0310)	*	0.0536	(.0313)	*
가구총소득(로그)							-0.0210	(.0116)	*			
근로소득(로그)										-0.0113	(.0070)	
금융소득(로그)										-0.0273	(.0118)	**
부동산소득(로그)										0.0089	(.0084)	
사회부조(로그)										0.0064	(.0091)	
이전소득(로그)										0.0110	(.0071)	
기타소득(로그)										0.0191	(.0099)	*
LogL	-5387.3			-5360.0			-5353.1			-5346.1		
검정통계량	522.4	***		54.6	***		13.8	***		27.8	***	
자유도	8			10			4			9		

주: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그리고 *는 각각 유의수준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는 본문을 참조.

2. 주요 차별인식 결정요인

다음 표는 성, 학력(학벌), 연령, 장애, 출신지역, 기타 사유를 이유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때’ 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 여부(취업차별과 사회차별)와 학력 또는 연령을 이유로 한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한 여부(학력차별과 연령차별)를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6) 7)}

취업차별 인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예상과는 달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차별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력차별을 덜 경험하고 있는 반면 연령차별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상황이나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주에 비해 배우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차별을 덜 느끼고 있는 반면 기타 가구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차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차별(기타 가구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학력차별, 그리고 연령차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차별을 포함한 네 가지 차별 모두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결과를 보면, 연령차별은 58~59세에서, 취업차별은 42~43세에서, 학력차별은 36세에서, 그리고 사회차별은 3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차별상황과 차별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미만은, 고졸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차별과 사회차별 및 학력차별을 겪고 있는 반면 연령차별에서는 다소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대졸은 학력차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덜 느끼는 반면 다른 차별에서는 고졸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과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차별에서 고졸에 비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6) 주요 차별인식을 성별로 추정한 결과는 부표에 주어지고 있다.

7) 설명은 취업차별을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표 14> 주요 차별 인식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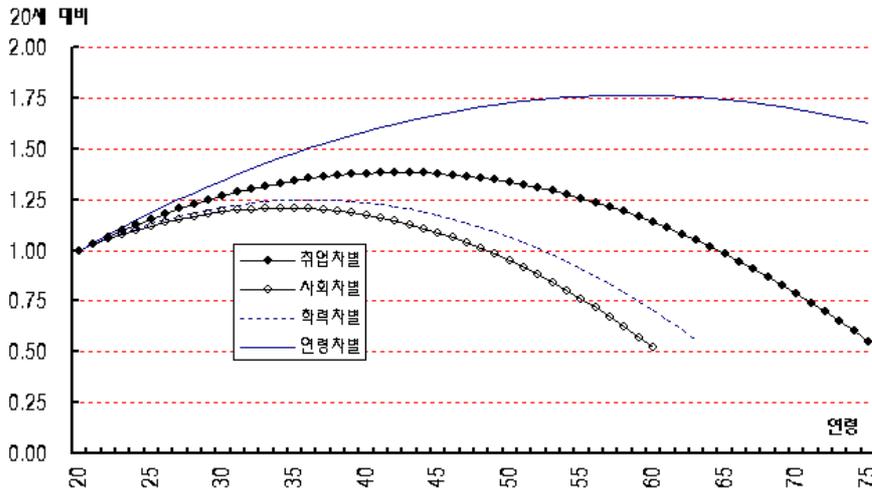
	취업차별			사회차별			학력차별			연령차별		
	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	-2.0460	(.2357)	***	-1.8682	(.2573)	***	-1.7592	(.2323)	***	-3.861	(.2800)	***
여성	-0.0277	(.0478)		0.0714	(.0533)		-0.2142	(.0477)	***	0.0908	(.0560)	
배우자	-0.1240	(.0579)	**	-0.1489	(.0646)	**	-0.1929	(.0599)	***	-0.1942	(.0649)	***
기타가구원	0.2547	(.0622)	***	0.0702	(.0697)		0.2021	(.0613)	***	0.0284	(.0727)	
연령/10	0.4570	(.0896)	***	0.1764	(.0936)	*	0.3807	(.0874)	***	0.8506	(.1006)	***
(연령/10)제곱	-0.0541	(.0091)	***	-0.0258	(.0092)	***	-0.0527	(.0089)	***	-0.0727	(.0097)	***
고졸미만	0.1488	(.0475)	***	0.2179	(.0523)	***	0.1653	(.0464)	***	0.0438	(.0524)	
전문대졸	-0.0814	(.0555)		-0.0254	(.0666)		-0.1351	(.0554)	**	-0.0478	(.0735)	
대졸	-0.2045	(.0542)	***	-0.1707	(.0668)	**	-0.5467	(.0610)	***	-0.0524	(.0667)	
대학원졸	-0.4355	(.1477)	***	-0.1778	(.1696)		-0.8867	(.1813)	***	-0.3492	(.1794)	*
건강매우 좋음	-0.2248	(.0966)	**	-0.1860	(.1115)	*	0.0932	(.0864)		-0.2032	(.1294)	
좋은 편	-0.1503	(.0404)	***	-0.2316	(.0472)	***	-0.1045	(.0413)	**	-0.1367	(.0472)	***
나쁜 편	0.0609	(.0582)		0.1263	(.0608)	**	0.0257	(.0592)		-0.0329	(.0603)	
매우 나쁨	0.0519	(.1278)		0.3062	(.1154)	***	0.0234	(.1258)		-0.1548	(.1199)	
부산	0.8201	(.0633)	***	0.7179	(.0688)	***	0.8072	(.0630)	***	0.852	(.0702)	***
대전	0.6614	(.0725)	***	0.6618	(.0785)	***	0.6393	(.0733)	***	0.8395	(.0804)	***
대구	0.3096	(.0973)	***	-0.3528	(.1608)	**	0.2208	(.1069)	**	0.4653	(.1137)	***
인천	-0.1119	(.0863)		-0.1308	(.1067)		0.0459	(.0853)		-0.2875	(.1260)	**
광주	0.5276	(.1042)	***	0.2231	(.1192)	*	0.0996	(.1194)		0.4553	(.1192)	***
울산	0.6802	(.0961)	***	0.9029	(.1002)	***	0.9822	(.0937)	***	0.9385	(.1068)	***
경기	0.2310	(.0547)	***	0.1637	(.0642)	**	0.3395	(.0557)	***	0.2624	(.0670)	***
강원	0.5152	(.1451)	***	-0.0080	(.1994)		0.342	(.1299)	***	0.4809	(.1387)	***
충북	0.6291	(.1177)	***	0.3282	(.1374)	**	0.5099	(.1159)	***	0.5076	(.1355)	***
충남	0.0672	(.1232)		-0.1680	(.1364)		-0.1124	(.1286)		0.1224	(.1409)	
전북	0.3281	(.0952)	***	0.6433	(.0917)	***	0.2267	(.1003)	**	0.3753	(.1089)	***
전남	0.2270	(.1289)	*	0.0656	(.1338)		-0.1445	(.1449)		0.5592	(.1237)	***
경북	0.4397	(.0846)	***	-0.2809	(.1186)	**	0.055	(.0939)		0.3805	(.0983)	***
경남	0.5087	(.0764)	***	0.1295	(.0917)		0.4124	(.0770)	***	0.4053	(.0922)	***
제주	-5.0212			-5.3556			-5.1057			-4.0471		
임시직	0.3673	(.0728)	***	0.0856	(.0936)		0.1001	(.0788)		0.3867	(.0857)	***
일용직	0.3046	(.0699)	***	0.1979	(.0855)	**	0.1771	(.0725)	**	0.2748	(.0795)	***
고용주	-0.4581	(.1001)	***	-0.0650	(.1043)		-0.4956	(.0974)	***	-0.5197	(.1144)	***
자영자	-0.3133	(.0685)	***	0.0437	(.0731)		-0.3606	(.0661)	***	-0.3977	(.0759)	***
무급종사자	-0.2633	(.1082)	**	0.1313	(.1027)		-0.3453	(.1048)	***	-0.4734	(.1209)	***
실업자	0.7099	(.0830)	***	0.2436	(.1027)	**	0.2531	(.0857)	***	0.7041	(.0910)	***
재학비경활	-0.5061	(.1105)	***	-0.8615	(.1180)	***	-1.2741	(.0984)	***	-0.6283	(.1545)	***
순수비경활	-0.0314	(.0512)		-0.0582	(.0596)		-0.2741	(.0529)	***	-0.2971	(.0608)	***
전세	-0.0295	(.0455)		-0.0455	(.0522)		0.0042	(.0458)		0.0281	(.0525)	
월세	0.2016	(.0572)	***	0.1819	(.0637)	***	0.2106	(.0575)	***	0.1573	(.0645)	**
기타입주형태	0.0416	(.0825)		0.0431	(.0948)		-0.0168	(.0869)		-0.0614	(.0991)	
아파트	0.0056	(.0423)		-0.0085	(.0477)		-0.0553	(.0424)		-0.0192	(.0477)	
연립다세대	0.0851	(.0505)	*	0.0303	(.0574)		0.0165	(.0502)		0.0774	(.0572)	
기타주택종류	0.0237	(.0780)		-0.1066	(.0920)		-0.1345	(.0832)		-0.1253	(.0977)	
가구경제 매우 여유	0.1237	(.3347)		-5.2073			-0.4659	(.5304)		0.2024	(.3493)	
여유있는편	0.0095	(.0958)		-0.0728	(.1103)		0.1315	(.0923)		0.0487	(.1129)	
어려운편	0.1630	(.0427)	***	0.0630	(.0487)		0.1445	(.0426)	***	0.1262	(.0500)	**
매우어려움	0.2277	(.0555)	***	0.1249	(.0631)	**	0.0851	(.0570)		0.298	(.0622)	***

<표 14> 주요 차별 인식 추정(계속)

	취업차별			사회차별			학력차별			연령차별		
근로소득(로그)	-0.0174	(.0089)	*	-0.0158	(.0096)	*	-0.0071	(.0093)		-0.0084	(.0095)	
금융소득(로그)	-0.0484	(.0156)	***	-0.0205	(.0168)		-0.0436	(.0158)	***	-0.0134	(.0169)	
부동산소득(로그)	0.0002	(.0111)		-0.0073	(.0126)		-0.0088	(.0115)		-0.006	(.0131)	
사회부조(로그)	0.0129	(.0117)		0.0148	(.0124)		0.0043	(.0121)		-0.0047	(.0123)	
이전소득(로그)	0.0083	(.0086)		0.0126	(.0097)		-0.0026	(.0088)		0.0102	(.0098)	
기타소득(로그)	0.0121	(.0118)		0.0063	(.0137)		0.0185	(.0120)		0.0184	(.0135)	
부동산자산보유	-0.1318	(.0482)	***	-0.1756	(.0558)	***	-0.0854	(.0482)	*	-0.2352	(.0575)	***
금융자산보유	0.0039	(.0400)		0.1264	(.0459)	***	0.0769	(.0406)	*	-0.0352	(.0458)	
부채보유	0.0269	(.0381)		0.0630	(.0431)		0.0178	(.0380)		0.0526	(.0438)	
LogL	-3570.6			-2615.3			-3418.0			-2573.4		
표본규모	8,505			10,870			11,661			11,661		

주: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그리고 *는 각각 유의수준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는 본문을 참조.

[그림 1] 연령별 차별인식



주: 모형식 추정치로부터 계산. 20세에 차별인식을 1로 놓음.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별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건강과 긍정적 사고가 차별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용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임시직이나 일용직근로자 및 실업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고용주나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재학비경험인구 모두 취업차별에서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 중 취업차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월세 입주자가 전세 입주자에 비해, 가구경제가 어려운 편인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취업차별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차별을 경험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반면 부동산소득 등 다른 소득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을 보면, 부동산자산 보유는 취업차별을 경험할 확률을 통계적 유의하게 낮추고 있는 반면 금융자산이나 부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고 있다.

3. 임금차별 인식 결정요인

다음 표는 '임금(월급, 보수)에서 성, 학력(학벌), 연령, 장애, 출신지역, 기타 사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여부(임금차별)를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대상으로는 먼저 전체 표본, 임금근로자, 남성 임금근로자, 여성 임금근로자 중 무응답과 '해당사항 없음'을 제외한 표본이다.

<표 15> 임금차별 인식 추정(계속)

	전체표본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남성			임금근로자-여성		
전세	-0.0356	(.0490)		-0.0289	(.0669)		-0.1876	(.0940)	**	0.1158	(.0999)	
월세	0.1232	(.0616)	**	0.1328	(.0861)		0.0765	(.1183)		0.1791	(.1300)	
기타입주형태	0.0717	(.0883)		0.1099	(.1209)		0.1376	(.1607)		0.1282	(.1956)	
아파트	0.0440	(.0454)		-0.0413	(.0636)		-0.0936	(.0873)		0.0174	(.0966)	
연립다세대	0.0374	(.0547)		0.0426	(.0733)		-0.0181	(.1008)		0.1220	(.1110)	
기타주택종류	-0.0064	(.0863)		0.0640	(.1205)		0.0152	(.1636)		0.1034	(.1931)	
가구경제 매우 여유	-0.0224	(.3984)		-0.1628	(.6573)		0.7047	(.9315)		-5.4181		
여유있는편	0.0191	(.1058)		0.1305	(.1330)		0.1896	(.1867)		0.0567	(.1986)	
어려운편	0.1619	(.0456)	***	0.0746	(.0628)		0.2364	(.0845)	***	-0.1151	(.0988)	
매우어려움	0.1596	(.0601)	***	0.1273	(.0849)		0.1529	(.1183)		0.1179	(.1276)	
근로소득(로그)	0.0052	(.0100)		-0.0049	(.0193)		0.0234	(.0300)		-0.0283	(.0276)	
금융소득(로그)	-0.0631	(.0178)	***	-0.0663	(.0254)	***	-0.0519	(.0330)		-0.1008	(.0432)	**
부동산소득(로그)	-0.0011	(.0121)		-0.0015	(.0191)		0.0016	(.0258)		-0.0049	(.0297)	
사회부조(로그)	0.0374	(.0124)	***	0.0437	(.0202)	**	0.0494	(.0308)		0.0461	(.0284)	
이전소득(로그)	0.0156	(.0092)	*	-0.0060	(.0135)		0.0075	(.0183)		-0.0170	(.0210)	
기타소득(로그)	0.0147	(.0124)		0.0373	(.0178)	**	0.0554	(.0238)	**	0.0162	(.0284)	
부동산자산보유	-0.0839	(.0515)		-0.0813	(.0730)		-0.0959	(.1006)		-0.0631	(.1117)	
금융자산보유	0.0486	(.0431)		-0.0058	(.0608)		-0.0056	(.0825)		-0.0177	(.0941)	
부채보유	0.0768	(.0408)	*	0.0194	(.0560)		0.0719	(.0771)		-0.0455	(.0859)	
LogL	-3020.4			-1619.2			-867.6			-706.5		
표본규모	8,511			4,116			2,491			1,625		

주: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그리고 *는 각각 유의수준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는 본문을 참조.

임금근로자를 보면, 여성이나 배우자 또는 기타 가구원 모두 남성이나 가구주에 비해 임금차별을 경험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남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임금차별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차별은 취업차별과는 달리 연령이 높아질수록(42세까지) 차별경험 확률이 낮아지다가 42세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41세)과 여성(43세) 모두에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차별 경험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데 전문대졸 여성이나 고졸 미만 여성 모두 고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시직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에 비해 임금차별을 경험할 확률이 한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면 양 쪽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나타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V. 연구요약 및 향후 과제 (추후 서술)

<부표 1> 주요 차별 인식 추정-남성

	취업차별			사회차별			학력차별			연령차별		
상수	-2.7452	(.3414)	***	-3.1122	(.4117)	***	-2.4940	(.3272)	***	-4.8471	(.4336)	***
배우자	0.2106	(.1864)		0.1016	(.2364)		0.3391	(.1756)	*	-0.0903	(.2768)	
기타가구원	0.4008	(.0833)	***	0.3027	(.1005)	***	0.3576	(.0808)	***	0.2382	(.1045)	**
연령/10	0.6486	(.1271)	***	0.6264	(.1495)	***	0.5763	(.1207)	***	1.0613	(.1522)	***
(연령/10)제곱	-0.0690	(.0128)	***	-0.0698	(.0148)	***	-0.0664	(.0122)	***	-0.0827	(.0145)	***
고졸미만	0.2711	(.0644)	***	0.3640	(.0738)	***	0.2847	(.0613)	***	0.0921	(.0725)	
전문대졸	-0.0933	(.0791)		-0.1430	(.1021)		-0.2278	(.0769)	***	0.0256	(.1029)	
대졸	-0.2925	(.0736)	***	-0.3330	(.0977)	***	-0.5912	(.0779)	***	0.0222	(.0879)	
대학원졸	-0.6777	(.2029)	***	-0.9352	(.3721)	**	-1.3193	(.2846)	***	-0.3103	(.2211)	
건강매우 좋음	-0.1385	(.1244)		0.0216	(.1422)		0.2282	(.1089)	**	-0.0683	(.1568)	
좋은 편	-0.1094	(.0579)	*	-0.2221	(.0716)	***	-0.0480	(.0571)		-0.1789	(.0680)	***
나쁜 편	0.0242	(.0865)		0.1900	(.0952)	**	0.0304	(.0864)		-0.1096	(.0935)	
매우 나쁨	0.0124	(.1722)		0.2373	(.1780)		0.0578	(.1636)		-0.2445	(.1760)	
부산	0.8427	(.0906)	***	0.8589	(.1030)	***	0.8716	(.0887)	***	0.8642	(.1030)	***
대전	0.7508	(.1032)	***	0.7265	(.1189)	***	0.7500	(.1007)	***	0.9406	(.1156)	***
대구	0.4881	(.1353)	***	-0.4518	(.2636)	*	0.4361	(.1379)	***	0.6421	(.1531)	***
인천	-0.0150	(.1171)		-0.1057	(.1545)		0.0674	(.1143)		-0.1242	(.1647)	
광주	0.5749	(.1438)	***	0.2629	(.1810)		0.0573	(.1697)		0.4968	(.1706)	***
울산	0.8632	(.1360)	***	1.1649	(.1478)	***	1.1091	(.1314)	***	1.0112	(.1542)	***
경기	0.3085	(.0782)	***	0.2365	(.0969)	**	0.4194	(.0774)	***	0.2831	(.0983)	***
강원	0.7495	(.2019)	***	0.3420	(.2701)		0.5191	(.1723)	***	0.6645	(.1934)	***
충북	0.7800	(.1645)	***	0.4741	(.1967)	**	0.6850	(.1560)	***	0.6625	(.1860)	***
충남	0.1639	(.1706)		0.0093	(.2010)		-0.0331	(.1766)		0.2805	(.1951)	
전북	0.3748	(.1372)	***	0.4294	(.1539)	***	0.4061	(.1334)	***	0.1502	(.1769)	
전남	0.1695	(.1935)		0.2574	(.2028)		-0.2977	(.2278)		0.3494	(.2096)	*
경북	0.4951	(.1214)	***	-0.2603	(.1823)		0.2427	(.1239)	*	0.3858	(.1470)	***
경남	0.5926	(.1061)	***	0.0611	(.1468)		0.5460	(.1039)	***	0.4147	(.1345)	***
임시직	0.4065	(.1169)	***	0.1051	(.1577)		0.0751	(.1250)		0.4191	(.1421)	***
일용직	0.2610	(.0887)	***	0.1511	(.1107)		0.1131	(.0902)		0.2703	(.1048)	***
고용주	-0.3785	(.1136)	***	-0.0752	(.1255)		-0.4737	(.1095)	***	-0.3757	(.1263)	***
자영자	-0.3391	(.0831)	***	-0.0327	(.0947)		-0.3657	(.0777)	***	-0.4221	(.0970)	***
무급종사자	-0.2616	(.2766)		-0.2401	(.3540)		-0.6717	(.3021)	**	-0.2475	(.3085)	
실업자	0.7408	(.1124)	***	0.3452	(.1378)	**	0.2508	(.1132)	**	0.8401	(.1234)	***
재학비경활	-0.4134	(.1535)	***	-0.9754	(.1969)	***	-1.2687	(.1344)	***	-0.2046	(.1899)	
순수비경활	0.0471	(.0896)		0.0547	(.1065)		-0.1974	(.0891)	**	-0.1587	(.1064)	
전세	-0.0685	(.0657)		-0.0493	(.0795)		-0.0158	(.0636)		-0.0262	(.0790)	
월세	0.1947	(.0809)	**	0.1025	(.0967)		0.1964	(.0803)	**	0.1693	(.0954)	*
기타입주형태	0.0047	(.1150)		0.1349	(.1356)		-0.0155	(.1156)		-0.0639	(.1453)	
아파트	-0.0699	(.0598)		0.0312	(.0727)		-0.0258	(.0582)		-0.0923	(.0698)	
연립다세대	0.0892	(.0700)		0.1612	(.0835)	*	0.0995	(.0683)		0.0575	(.0819)	
기타주택종류	-0.1087	(.1113)		-0.1319	(.1416)		-0.1812	(.1147)		-0.2778	(.1501)	*
가구경제 매우 여유	-0.1617	(.6152)		-5.2119			-0.0943	(.6180)		-5.4964		
여유있는편	0.1129	(.1325)		-0.0537	(.1815)		0.1552	(.1266)		-0.0335	(.1681)	
어려운편	0.2134	(.0601)	***	0.0968	(.0735)		0.2100	(.0577)	***	0.1269	(.0720)	*
매우어려움	0.2795	(.0796)	***	0.1428	(.0960)		-0.0086	(.0802)		0.2781	(.0913)	***
근로소득(로그)	-0.0160	(.0130)		-0.0231	(.0153)		-0.0132	(.0130)		0.0063	(.0148)	
금융소득(로그)	-0.0488	(.0214)	**	-0.0314	(.0266)		-0.0387	(.0210)	*	-0.0138	(.0243)	
부동산소득(로그)	-0.0078	(.0156)		-0.0110	(.0198)		-0.0058	(.0153)		-0.0182	(.0189)	
사회부조(로그)	0.0140	(.0164)		0.0193	(.0192)		-0.0006	(.0166)		-0.0143	(.0180)	
이전소득(로그)	0.0127	(.0122)		0.0164	(.0148)		-0.0046	(.0122)		0.0214	(.0142)	
기타소득(로그)	0.0135	(.0166)		-0.0200	(.0220)		0.0133	(.0167)		0.0086	(.0197)	
부동산자산보유	-0.1691	(.0677)	**	-0.2322	(.0871)	***	-0.1298	(.0655)	**	-0.2685	(.0823)	***
금융자산보유	0.0410	(.0564)		0.1626	(.0689)	**	0.0880	(.0553)		0.0237	(.0665)	
부채보유	0.0410	(.0538)		0.1559	(.0652)	**	0.0474	(.0521)		0.0996	(.0636)	
LogL	-1814.0			-1165.0			-1878.1			-1243.0		
표본규모	4,425			5,326			5,634			5,624		

주: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그리고 *는 각각 유의수준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는 본문을 참조.

<부표 2> 주요 차별 인식 추정-여성

	취업차별		사회차별		학력차별		연령차별					
상수	-1.7292	(.3384)	***	-1.1133	(.3409)	***	-1.7265	(.3499)	***	-3.2391	(.3806)	***
배우자	-0.2152	(.0758)	***	-0.1838	(.0811)	**	-0.2608	(.0826)	***	-0.2838	(.0787)	***
기타가구원	0.0746	(.1040)		-0.1502	(.1086)		0.0970	(.1076)		-0.0916	(.1107)	
연령/10	0.4222	(.1338)	***	-0.0715	(.1263)		0.3804	(.1380)	***	0.7813	(.1418)	***
(연령/10)제곱	-0.0539	(.0139)	***	0.0011	(.0123)		-0.0581	(.0145)	***	-0.0736	(.0138)	***
고졸미만	0.0509	(.0726)		0.0817	(.0764)		0.0825	(.0734)		0.0409	(.0787)	
전문대졸	-0.0551	(.0791)		0.0636	(.0906)		-0.0400	(.0812)		-0.1492	(.1082)	
대졸	-0.0814	(.0824)		-0.0011	(.0948)		-0.4768	(.1000)	***	-0.1255	(.1066)	
대학원졸	0.0404	(.2392)		0.4607	(.2301)	**	-0.1977	(.2704)		-0.3093	(.3294)	
건강매우 좋음	-0.2919	(.1568)	*	-0.4416	(.1965)	**	-0.0365	(.1472)		-0.4535	(.2540)	*
좋은 편	-0.1779	(.0578)	***	-0.2390	(.0646)	***	-0.1514	(.0612)	**	-0.0822	(.0675)	
나쁜 편	0.1127	(.0812)		0.0662	(.0817)		0.0478	(.0850)		0.0329	(.0821)	
매우 나쁨	0.0125	(.1998)		0.2625	(.1583)	*	-0.1629	(.2214)		-0.0964	(.1710)	
부산	0.8181	(.0900)	***	0.6183	(.0951)	***	0.7684	(.0914)	***	0.8486	(.0985)	***
대전	0.5849	(.1035)	***	0.6420	(.1071)	***	0.5463	(.1092)	***	0.7792	(.1147)	***
대구	0.1640	(.1428)		-0.2816	(.2100)		-0.0559	(.1809)		0.2823	(.1790)	
인천	-0.2068	(.1310)		-0.1386	(.1518)		0.0501	(.1308)		-0.5239	(.2125)	**
광주	0.5248	(.1547)	***	0.2173	(.1624)		0.1903	(.1709)		0.4860	(.1710)	***
울산	0.5493	(.1391)	***	0.7329	(.1408)	***	0.9066	(.1366)	***	0.9252	(.1519)	***
경기	0.1848	(.0783)	**	0.1165	(.0883)		0.2714	(.0820)	***	0.2788	(.0941)	***
강원	0.2894	(.2140)		-0.3837	(.3275)		0.0976	(.2093)		0.3426	(.2059)	*
충북	0.5196	(.1725)	***	0.2300	(.1996)		0.3396	(.1808)	*	0.3710	(.2074)	*
충남	0.0242	(.1812)		-0.2609	(.1912)		-0.1317	(.1908)		-0.0155	(.2158)	
전북	0.3021	(.1342)	**	0.7879	(.1185)	***	0.0511	(.1581)		0.5622	(.1429)	***
전남	0.2770	(.1774)		-0.0315	(.1810)		-0.0021	(.1936)		0.7086	(.1613)	***
경북	0.4155	(.1206)	***	-0.2905	(.1599)	*	-0.1401	(.1520)		0.4298	(.1360)	***
경남	0.4688	(.1127)	***	0.2244	(.1207)	*	0.3232	(.1183)	***	0.4560	(.1301)	***
임시직	0.2749	(.0954)	***	0.0571	(.1205)		0.0668	(.1045)		0.2766	(.1106)	**
일용직	0.2830	(.1186)	**	0.1946	(.1424)		0.2076	(.1282)		0.2793	(.1289)	**
고용주	-0.7580	(.2374)	***	-0.0615	(.2029)		-0.6312	(.2397)	***	-1.3308	(.3909)	***
자영자	-0.3506	(.1300)	***	0.0859	(.1256)		-0.5104	(.1441)	***	-0.3998	(.1313)	***
무급종사자	-0.2992	(.1216)	**	0.1570	(.1146)		-0.2861	(.1177)	**	-0.5826	(.1371)	***
실업자	0.6435	(.1253)	***	0.0785	(.1632)		0.2440	(.1336)	*	0.5379	(.1388)	***
재학비경험	-0.5958	(.1624)	***	-0.7165	(.1525)	***	-1.2245	(.1482)	***	-1.3430	(.3466)	***
순수비경험	-0.1218	(.0651)	*	-0.1173	(.0757)		-0.3112	(.0690)	***	-0.4248	(.0768)	***
전세	0.0168	(.0642)		-0.0552	(.0714)		0.0398	(.0674)		0.1041	(.0723)	
월세	0.2087	(.0825)	**	0.2695	(.0869)	***	0.2538	(.0847)	***	0.1659	(.0902)	*
기타입주형태	0.0678	(.1217)		-0.0702	(.1388)		-0.0256	(.1365)		-0.0356	(.1401)	
아파트	0.0957	(.0611)		-0.0355	(.0652)		-0.0708	(.0636)		0.0745	(.0676)	
연립다세대	0.0970	(.0741)		-0.0831	(.0815)		-0.0645	(.0758)		0.1144	(.0819)	
기타주택종류	0.1931	(.1120)	*	-0.1005	(.1259)		-0.0702	(.1244)		0.0281	(.1340)	
가구경제 매우 여유	0.2599	(.4197)		-5.2062			-5.2420			0.5478	(.4040)	
여유있는편	-0.1017	(.1422)		-0.0699	(.1431)		0.1330	(.1382)		0.1101	(.1580)	
어려운편	0.1172	(.0617)	*	0.0506	(.0667)		0.0706	(.0650)		0.1186	(.0716)	*
매우어려움	0.1870	(.0790)	**	0.1140	(.0866)		0.1822	(.0835)	**	0.2962	(.0874)	***
근로소득(로그)	-0.0175	(.0128)		-0.0083	(.0130)		0.0019	(.0142)		-0.0160	(.0132)	
금융소득(로그)	-0.0521	(.0234)	**	-0.0125	(.0223)		-0.0502	(.0246)	**	-0.0138	(.0243)	
부동산소득(로그)	0.0071	(.0162)		-0.0054	(.0170)		-0.0170	(.0180)		0.0033	(.0187)	
사회부조(로그)	0.0083	(.0171)		0.0054	(.0170)		-0.0032	(.0186)		-0.0021	(.0174)	
이전소득(로그)	0.0045	(.0123)		0.0065	(.0133)		0.0005	(.0132)		0.0032	(.0138)	
기타소득(로그)	0.0122	(.0169)		0.0286	(.0180)		0.0243	(.0175)		0.0264	(.0187)	
부동산자산보유	-0.1029	(.0702)		-0.1332	(.0748)	*	-0.0403	(.0732)		-0.2181	(.0827)	***
금융자산보유	-0.0289	(.0578)		0.1096	(.0633)	*	0.0705	(.0612)		-0.0892	(.0648)	
부채보유	0.0208	(.0553)		0.0005	(.0593)		-0.0129	(.0571)		0.0300	(.0624)	
LogL	-1716.0			-1392.9			-1485.2			-12794.0		
표본규모	4,080			5,544			6,027			6,027		

주: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그리고 *는 각각 유의수준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는 본문을 참조.